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2014 Final Report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사회 및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성평등이 실현되고 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회와 이 땅의 남성과 여성 모두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영리여성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핵심 사업입니다.

한 눈에 보는 2014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13개 단체에 총 161,500,000원 지원 (자유공모 131,500,000원 / 기획공모 30,000,000원)
- ★는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자유공모 }

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성평등 문화 정착	군포여성민우회	〈레알페미니스트프로젝트 : 여성주의, 일상이 되다〉	11,907,000
	여성환경연대	여성들의 유쾌한 상상과 전환 - 에코페미니즘 대중화와 정책화 사업	12,900,000
	인천여성영화제 ★	페미니즘, 영화로지역에접속하라	12,850,000
	줌마네	‘집나온여자들(가제)’에 관한 영상물제작을 위한 워크샵과 상영회	12,000,000
여성 노동권 향상 및 empowerment	대구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살대! 살대! 살대!	11,825,000
	일다 ★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담다	10,500,000
여성운동 활성화	경남여성회	색깔있는 “청춘도(都)시(時)락(樂)” (도시에서 청춘들이 시도때도 없이 만나 소통하는 즐거움)	15,000,000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운동판언어 다시짜기 프로젝트	10,940,000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여성활동가 자기조직화와 네트워크 만들기 “동행”	14,980,000
여성폭력 예방, 여성인권 증진	여성인권상담 소소나의집	“경찰과 함께하는 여성폭력인식개선 교육&캠페인” - 여성폭력 NO! NO! NO! 함께하는 포돌이 행복한 여성	3,598,000
	한국여성의전화	건강하고 평등한 연애를 위한“데이트공작소”	15,000,000

{ 기획공모 }

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성평등 정책 만들기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성평등은 제도보다 참여와 실천으로 이뤄낸다	15,000,000
	한국여성단체연합	[Post-2015,여성운동미래전망만들기연석토론회]	15,000,000

지난 2월 우리 사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생활고를 비판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 사건에 잇달아 보도되는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 고독사 등은 한국의 국가복지가 얼마나 허술하고 사각지대의 고통이 극심한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 노동자 가운데 최저생계비(3인가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이가 71만9700여 명(67.8%)이었고, 5명 중 1명(21만6713명)은 임금이 55만원 이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빈곤의 문제를 자본주의에 기반한 경제구조 속에서 과연 복지정책만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책무 수행과 더불어,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더 나아가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한국여성재단 고유 핵심목적사업입니다. 이 책자에 실은 14개의 사업은 2013년도에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여성단체들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비정규직 문제, 돌봄가치의 확산, 여성 및 약자에 대한 폭력의 문제 등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우리사회의 큰 과제를 풀기 위해 여성운동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신 개인기부자님들의 기부가 있었기에 이 사업들이 가능했습니다. 기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평등과 돌봄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는 그 날 까지 쉬지 않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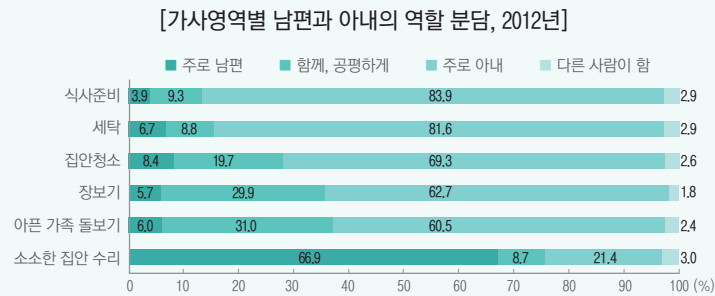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배출 그러나 현실의 여성은?

한국 남성, OECD 국가 중 가사노동 참여 시간 꼴찌!

-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남성이 하루에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45분으로,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
- 가사 일은 집안수리를 제외하면 아내가 주로 수행
 - 한국의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직장일과 가정일이라는 이중 역할 수행
 -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 부인이 남편보다 '평균 7배'



주 : 만 20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2.

- 한국의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직장일과 가정일이라는 이중 역할 수행
-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 부인이 남편보다 '평균 7배'

“다시 태어난다면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성별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느껴!

- 여자 대학생들이 꼽은 '여성이라서 감내해야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은?
 - 여자에게만 유난히 혹독한 외모 지상주의 (65.0%)
 - 성추행, 강권범죄 등 남자들보다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 (58.8%)
 - 사회 진출, 취업 등에 있어 남자에 비해 선택의 폭과 기회가 적은 것 (49.3%)
 - 여성이 가사, 양육을 거의 전담해야 하는 현실(46.3%)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이에 따른 불이익(46.0%)
- '만약 다음 생이 있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성별로 태어나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남녀 대학생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을 꼽는 응답이 두드러졌음
 - 남녀 대학생 모두 40%를 웃도는 응답자가 '다음 생엔 남자'로 답함
 - '여성'을 꼽는 응답자는 이의 절반 수준인 23% 가량에 그쳤음
 - 심지어 다시 태어나면 '여성'이 되고 싶다는 의견은 '성별은 상관 없다'는 응답(34.5%)에도 약 12%포인트 가량 뒤지는 수치임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레알페미니스트 프로젝트 (군포여성민우회)>, <여성들의 유쾌한 상상과 전환 (여성환경연대)>, <페미니즘, 영화로 지역에 접속하라 (인천여성영화제)>, <‘집나온 여자들’에 관한 영상물 제작을 위한 워크숍과 상영회 (줌마네)>를 지원하였습니다.

※ 출처 : 여성신문 2015. 02. 11, 파이낸셜뉴스 2014. 03. 11

레알페미니스트 프로젝트 : 여성주의, 일상이 되다

군포여성민우회

억압적인 가부장 문화, 그럴 수도 있지...???

- 여성주의 철학 대중강좌 <나를 매혹시킨 여성철학자들> 진행 (총 7회, 138명 참여)
- <오감만족 여성주의 문화체험> 진행 (총 3회, 42명 참여)
- 생활 속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 속 평등지수 높이기> 캠페인 (1회, 300명 참여), <여성주의 마을 축제> 진행 (총 1회, 500명 참여)
-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지침서 <여성주의 실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00부)
- 가부장 문화 극복기 실천사례집 <가문의 극복> 제작 및 배포 (100부)



여성주의, 일상에서 다시 시작하다

- 여성주의, 나부터 시작
 - 여성주의 강좌 및 문화체험을 통해 '나'부터 여성주의 의식 정립 및 역량 강화
 - 가부장적 생활문화 속 경험담을 나누고 극복의 노하우를 배우며 대안 찾기
 - : 가부장 문화 극복기 실천사례 20개 사례 발굴
 - : 경기헤럴드를 통해 연재
 - : 지역 시민단체 및 기관에 배포, 군포여성민우회 내 북카페민우에 비치 및 대여
- 여성주의, 마을에서 시작
 - 캠페인, 마을축제 등의 시민참여 방식을 활용하여 마을에서부터 여성주의가 확산, 대중화되는 기반 마련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346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상과 여성 자신 안에서 작동되는 여성 차별적 요소들을 찾아내어 변화시키는 작업들은 한편으로 통쾌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힘든 작업이었다. 그동안 여성차별의 문제는 은폐되고 생활화되어 여성 스스로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가시화시키는 작업은 여성들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반발이 있었다.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된 문화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작업은 참으로 힘들게 깨닫는 과정이었다. 일상에서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복순 군포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여성들의 유쾌한 상상과 전환

— 에코페미니즘 대중화와 정책화 사업

여성환경연대

어떻게 살면 좋을까?

- 여성환경정책 토론회 개최 (총 2회, 39명 참여)
- 여성환경 분야 10인의 사람책 콘텐츠 개발과 대출
- 에코페미니즘 학교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진행 (총 7회, 150명 참여)
- 에코페미니즘 교재 제작 및 발간



에코페미니즘이 대안이다

- ‘돌봄과 살림’은 여성들의 전유물?
 - ‘돌봄과 살림’에 대한 여성주의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전망 담론 형성
 - 돌봄 · 공동체, 일, 농업, 탈핵 · 에너지전환, 건강 · 안전 5가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과제 제시
 -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다른 삶을 상상하는 사람 도서관
 - 10인의 사람책 콘텐츠 온 · 오프라인 배포를 통해 대안 사회의 가치 대중적 확대
- | | |
|------------------------------|---------------------------------|
| ★ 세달맘 <엄마들이 모여 방사는 공부를 한다?> | ★ 박은선 <삶, 노동, 예술, 현장의 경계를 허물다> |
| ★ 평평 <당네 이종마들과 좀 놀아본 청년 활동가> |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
| ★ 김소영 <나는 도시의 에너지 경작자> | ★ 김수향 <홍대 앞 카페 사장님이 고민하는 오가닉푸드> |
| ★ 달군 <농사, 그림, 자립을 달달하게 ‘달군’> | ★ 신필식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
| ★ 주은진 <청순한 그녀의 무모한 시골살이 8년차> | ★ 김란이 <비혼여성공동체, 서로의 뺨이 되어주다> |
- 국내 최초 에코페미니즘학교 시도 및 교재 제작
 - 에코페미니즘학교 진행을 통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논의와 토론, 담론 형성
 - 외국의 이론과 사례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사회 맥락과 언어로 정리 된 교재 제작
- ☞ 에코페미니즘의 가치와 대안을 대중적으로 알림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346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의 적절한 혼합과 애매한 사이가 아닌, 여성의 관점으로 생태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진행한 기획회의와 에코페미니즘학교를 통해서 에코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담는 관점과 철학이라는 기대로 함께 했다. 올해 상반기 세월호와 밀양, 힘을 모아야 할 이슈들이, 에코페미니즘이 제기하는 생명과 돌봄, 자급의 관점으로 맞닿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면에서, 밀도 있게 공감되어었다. 일이나 업무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삶으로 다가온 것. 이런 갈등과 간절함 느끼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 이미 희망이 되어 소소하게 삶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10명의 사람책을 만나고 기획위원장들, 현장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 강수현 여성환경연대 정책국 활동가 }



‘집나온 여자들’에 관한 영상물 제작을 위한 워크숍과 상영회

좀마네

‘다른 목소리들’이 필요해

- 영상제작팀 구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진행(12명 모집, 총 30강 진행)
- 옴니버스 영화 개별 작품 촬영 및 제작(총 6편 제작)
- 찾아가는 상영회 개최(총 3회, 약 150명 참여)



여성주의, ‘영화’로 말하다

- 우리 함께 오~래 영화 만들자!
 - 여성주의 인식과 실제 영상제작 과정을 그대로 담아낸 워크숍 커리큘럼 개발(30강)
 - 지속가능한 여성주의 영화제작공동체 결성
 - :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개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옴니버스 영화 기획을 통해 개별 창작 욕구를 달성하는 한편 협업의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집 (가부장제) 나온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다
 - 다양한 여성주의적 시선이 담긴 시나리오 8편 개발 및 단편영화 6편 완성
- | | |
|--------------------------------|---------------|
| ★ 강유가람 <진주머리방> | ★ 박순천 <생명의 숲> |
| ★ 김혜정 <소장님의 결혼> | ★ 이은 <춤비람> |
| ★ 반박지은 <당신과 나의 집>— 박순천 <생명의 숲> | ★ 조혜정 <손님> |
- 대중과 가까이, 여성주의 영화를 공유하다
 - 재래시장과 청소년 쉼터, 여성노동자 작업장, 동네 식당 등 공간과 형식을 넘어 ‘찾아가는 상영회’를 진행함으로써 ‘여성주의 영화’를 대중과 공유 및 소통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348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소속과 배경과 생각이 각양각색인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첫 번째 영화를 함께 리뷰하는 시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장롱 속에 잠들어 있었다니... 다시 한 번 여성영화제작집단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올 한 해는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해가 되었다. 옴니버스라는 영화 형식을 함께 기획하고 작품별로 서로의 현장 스태프가 되어주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기탄없는 코멘트를 해주는 가운데 6작품의 단편영화가 완성되었다. 처음에 목표로 한 ‘지속적인 여성영화제작집단’이 가능할까 불투명했으나, 이제는 그 기반이 확실히 마련되었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다.

{ 김혜정 <왕자가 된 소녀들> 강사 }



페미니즘, 영화로 지역에 접속하다

인천여성영화제

영화, 지역, 여성주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 지역 여성영화 상영집단과의 만남 <여성영화와 지역의 랑데부 10년> 진행 (전국 8개 지역, 총 13회)
- 여성영 화상영문화 확산을 위한 포럼 <페미니즘, 영화로 지역에 접속하다> 개최 (1회, 200명 참여)
- 결과보고서 및 여성영화 프로그램북 <인천여성영화제가 추천하는 영화 51선> 발간



영화, 나와 너를 잇는 공통의 경험

- 지역에서도 여성영화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 지역 여성영화가 나아갈 방향 모색

: 여성활동가, 지역NGO, 여성학자, 여성영화 제작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인천여성영화제' 10년의 성과를 정리, 향후 방향 정립

– 여성영화 상영집단 간의 교류 활성화

: 서울, 제주, 대구, 광주, 부산, 익산 등 전국의 지역 여성영화 상영집단을 만나 여성영화 지역상영 현황과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나눔

☞ 전국지역여성영화제 네트워크 준비모임 구성



- 지역 여성영화제의 역할은 여성주의 문화 확산

– 인천여성영화제와 지역의 여성영화 상영집단의 고민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 발간

: 여성주의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서의 여성영화, 지역과 만나 새로운 담론을 생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 여성영화제의 역할 및 방향 공유

– 지역의 대중들과 만나 다양한 페미니즘 이슈를 나눌 수 있는 여성영화 프로그램북 발간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373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월 말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만났다. 처음엔 현황 정도만 알아보리라 생각하고 떠난 여행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그 만남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역 여성영화 상영활동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성운동 전반의 어려움과 열악한 지역 상황 안에서 여성영화 상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활동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희망보다는 절망을 말하는 시기, 여성영화 상영은 단순한 상영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점점 사라져가는 '결'을 만드는 활동이라는 믿음이 굳어졌다.

{ 이영주 인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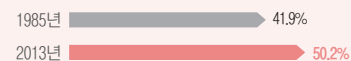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대회

여성의 삶, 어디까지 왔을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부문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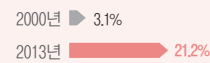


- 여성의 공직진출 부문

– 공직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



– 여성 법조인의 비율



- 여성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장치

-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정
-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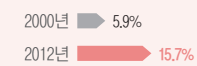
- 여성의 교육수준 부문

– 여성의 대학진학률



- 여성의 정치참여 부문

– 국회의원 여성의원 비율



여성운동이 이루어낸 너무나 많은 성과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여성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 패션지 <그라치아 코리아> 2월호에 실린 김태훈의 칼럼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그라치아

- 여성운동, 우리 사회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운동 그러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와 직접 연결되어 여성운동의 사회적 지지기반 약화
-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 및 지속가능한 운동 기반 마련 절실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를 만드는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색깔있는 청춘 도도시탈락樂(경남여성회)>, <여성운동판언어 다시짜기 프로젝트(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활동가 자기조직화와 네트워크 만들기 "동행"(일하는여성아카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 출처 :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0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김영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라치아코리아 2월호



색깔있는 “청춘도(都)시(時)락(樂)”

도시에서 청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만나 소통하는 즐거움!

경남여성회

청년, 만나고 꿈꾸고 변화하다!

- <성평등 문화살롱> 개최를 통한 3기 2030 성평등 리더 발견 및 1~3기 리더들의 만남 진행(8개 팀, 총 60명)
-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팀별 활동 <커피파티>(72회)
-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월드카페> (8회, 총 60명 참여)
-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일만 만나!> 워크숍 개최 (1회, 총 30명 참여)
- <지금, 꿈꾸는 청춘!> 최종보고회 개최 (1회)



일상에서의 움직임이 곧 성평등!

- 일상에서 꿈꾸는 성평등
 - 2030 젊은 리더가 자신들이 직면한 생활상의 문제나 관심을 공유하는 소모임 조직(2013년 기존 2개 팀, 2014년 신규 6개 팀)
 - 팀별 활동을 전제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 ☞ 즐기면서 실천할 수 있는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활동 진행 (8개 팀, 각 9회 활동, 총 72회 진행)
 - 리더네트워크, 참여지역역량강화워크숍 개최를 통한 팀별 역량강화 및 팀간 네트워킹
- 지역에서 꿈꾸는 성평등
 - ‘성평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 조직사업이 부족한 경남지역에서 2030 청년 리더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의제를 조성하고 ‘지역’과 만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동 진행
 - ☞ 2030세대가 지역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보이는 라디오, 기행, 퍼포먼스, 아웃리치, 페미니즘 특강,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 형태와 주제를 만들어냄 (8개 팀, 각 1회 활동, 총 8회 진행)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43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에 생각만 해오던 아이디어들을 실현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팀과 함께 익숙치 않은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며 평소에 무지하게 있었던 것에 반성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 활동이 사회적 활동으로 발전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사회문제 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와 성평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색깔있는 “청춘 도(都)시(時)락(樂)” 참가자 후기 }



여성운동판 언어 다시짜기 프로젝트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내가 생각하는 여성운동은?

- 소통을 가로막는 언어발굴작업
 - facilitator 구성 민 운영 (전문가 3인 참여, 3회 진행)
 - 모니터링 단 구성, 교육 및 운영 (20명 모집)
- 새로운 운동 언어 만들기 위원회 운영
 - 팀모임 (3회), 팀별 토론회 (9회),
- 사전 e-book 제작 및 배포 (전국 885개 여성단체 및 언론사 등에 배포)



‘언어’로 여성운동을 다시 깨우다

- 후배활동가와 선배활동가들의 소통의 시간
 - 여성운동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여성운동 단체의 활동가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세대 간 인식의 차이에 대하여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근거 마련
 - 활동가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활동가에게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선배활동가에게는 후배활동가들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으로 세대간 교류 확대
 - ☞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의 가능성 발견
- 선배들의 역사성과 후배들의 공감으로 이루어진 사전 발간
 - 20인의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24개 단어 각각의 개념과 의미 등을 담은 사전 발간

여성운동의 소통을 가로막는 24개 단어

- 여성운동의 방향 및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들
 - 활동가, 여성해방, 여성운동, 여성주의, 성평등, 성주류화, 비혼, 성희롱, 생존자, 당사자 활동가
- 여성운동에서 호명의 문제와 실천의 문제
 - 자매애, 가사노동, 소외계층, 취약계층, 관리하다, 주도적, 역량강화조직강화
- 운동권 언어에 대한 성찰
 - 운동, 투쟁, 집회, 성명서, 규탄한다/축구한다, 지점/~적운동판(운동진영), 연대(연합)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318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대중들에게 투쟁, 투사, 민중 등 이러한 언어들은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와 연결되고 단식투쟁, 점거농성 등 ‘강한’모습들이 운동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매김 되도록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운동권에서 사용되는 언어들과 행동양식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운동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중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운동,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운동,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는 여성운동권을 통해서 여성을 위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 씨니 모니터링단 }



여성활동가 자기조직화와 네트워크 만들기 “동행”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여성활동가들의 활동지속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 <여성활동가 자기조직화> 프로그램 기초 및 심화과정 진행
 - 수도권 영남권 각 2회 진행 (총 4회, 총 118명 참여)
 -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처 방식, 수용과 알아차림, 요가를 통한 마음챙김, 가치를 향한 행동과 장애물 극복하기
 - 자료집 / 워크북 제작 및 배포 (총 180부)
-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동행’
 - 온라인 네트워크 : 온라인 SNS 활용
 - 오프라인 네트워크 : 자기조직화 프로그램 이수자 워크숍 진행 (1박 2일, 24명 참여)



‘나’는 여성운동을 이끌어 나갈 주체다!

- 즐겁고 행복한 여성운동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 여성활동가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과 가치를 연결함으로써 내적 동기 강화
 -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키움
 - <자기조직화> 프로그램 내용의 만족 ‘매우 그렇다’ 96%
 - <자기조직화> 프로그램 참여 목적 달성 ‘매우 그렇다’ 77%, ‘대체로 그렇다’ 23%
 - <자기조직화> 후속 프로그램의 참석 희망 ‘참석하겠다’ 84%
- 함께 하자, 여성운동
 -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지치기 쉬운 여성활동가들간에 상호지지와 격려의 장 마련, 여성운동 네트워크의 기반 구축
 - 일회적인 프로그램 참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성찰이 가능하도록 <자기조직화> 워크북 제작 및 배포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43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기조직화’란 단어부터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이번 사업은 5년차인 나에게도 절실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자기조직화는 현재 활동을 돌아보고 가치와 비전을 재점검,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다. 열악한 환경과 업무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내게 현장을 떠나지 않고 가능한 치유가 필요했었다. 함께하는 여성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는 그들의 현재 고민, 비전 등을 나누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같은 처지임을 느끼며 ‘으쌔’ 힘을 받을 수 있었다.

{ 조자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사업지원팀장 }

성평등 정책은 여성 정책?? 남녀모두를 위한 정책!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이 이끌어 낸 제도적 변화들~!

- 1994년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제정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정
-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모성 보호 강화
- 2002년 정당법 개정을 통한 여성할당제 강화
-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정
-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
- 2005년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 2006년 성인지예산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현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 여전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자
 - ☞ 여성 취업자 중 45.2%는 비정규직
 - ☞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은 16.9%.
 - ☞ 청소용역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도 못 받아
- 한국 ‘유리천장 지수’ OECD 3년째 ‘꼴찌’...여성 사회참여 ‘최저’
 - ☞ 한국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1.9%
 - ☞ 공공기관 여성임원 9.3%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 ☞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이 85.6%
 - ☞ 2013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중 가장 많은 상담내용은 가정폭력 48.2%
-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은 없다
 - ☞ 결혼과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여성 5명 중 1명(22.4%)이 경력단절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제도의 평등이 현실의 평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성평등은 제도보다 참여와 실천으로 이뤄낸다(창원여성살림공동체)>,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연석토론회(한국여성단체연합)>를 지원하였습니다.

※ 출처 : 2014 여성가족부, 2013 GMI레스팅스, 2014 통계청, 머니투데이 2015.03.08



성평등은 제도보다 참여와 실천으로 이뤄진다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시는 여성친화도시일까?

- 여성활동가, 지역여성,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팀 구성 (5명 참여)
- 전문가워크숍 진행 (3회, 5명 참여)
- 성별영향분석평가 아카데미 진행 (총 10강, 30명 참여)
-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 모집 (10명 모집) 및 모니터링 활동 (9회)
- 정책 환류 모니터링이 발표 및 토론회 개최 (1회, 약 100명 참여)
-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2회, 16명 참여)



성평등, 어디까지 왔니?

-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다
 - 기획팀 및 모니터링단 구성 시 여성활동가뿐 아니라 지역여성, 연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여성정책의 관심 확산 및 향후 활동 기반 마련
 - : 성별영향분석평가 아카데미, 스터디,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대중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 마련
 - : 사업 이후 2014년 9월부터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심화스터디 진행 중
 - 민간주도의 기초자치단체(창원시)의 정책 환류 모니터링 사례 등 젠더 거버넌스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 기반 마련
 - : 모니터링 결과에서 도출된 제안과 의견의 정책 반영으로 창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 2014년 11월부터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활동 중
 - : 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한 성평등 정책 제안
 - : 이행점검 등의 평가와 모니터링 활동 진행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43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수적인 경남에서 성평등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활동이 적게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점검이지만 크게 보면 지역 주민, 행정 등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이었기에 힘든 여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성장, 참여한 모니터링단의 역량이 나날이 커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뿌듯하였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발표하는 날, 이 날은 창원시는 걸어 다니기조차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토론회를 연기해야하는 것까지 고민했었지만 다행히 토론회 진행 시간 동안에 내린 비는 끝날 무렵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맑게 개였습니다. 그 날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면서 여성운동이,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미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무국장 }



Post-2015, 여성운동미래전망 만들기 연석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 전문가 기획회의 진행 (3회)
- 전체 워크숍 <글로벌 여성운동의 성평등 전략과 과제> 진행 (1회, 30명 참여)
- 현장활동가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의제별 토론회 (13회, 약 60명 참여) 및 의제 종합워크숍 진행 (2회, 30명 참여)



여성운동에 질문하다,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할 길

- 지난 10년 간, 한국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 제시된 12개의 주요관심분야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여성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16개 분야별 연속토론회 진행
 - : 16개 의제에 대한 한국적 현황, 여성운동의 성과 평가
 - : 각 의제별 토론회 결과를 총화, 지난 10년을 총괄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 여성정책 과제 등을 새롭게 정립

- | | | |
|------------------|----------------------|----------|
| ★ 여성과 빈곤 | ★ 여성과 경제 | ★ 북한이탈여성 |
| ★ 여성의 교육과 훈련 | ★ 권력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 ★ 여성농 |
| ★ 여성과 건강 | ★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 여성성소수자 |
| ★ 여성에 대한 폭력, 인권 | ★ 여성과 미디어 | ★ 여성장애인 |
| ★ 여성과 무력분쟁 | ★ 여성과 환경 | ★ 이주여성 |
| ★ 여아(girl-child) | | |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경제·사회·문화 및 정치적 결정에 평등한 참여를 통해 사적·공적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43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경여성대회 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젠더’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여전히 관점의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다수가 공감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다.”

“요즘의 고민은 여성운동의 목표가 무엇이였을까 라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였을까, ‘평등’이었을까. 갈 길은 어디인가.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노동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임금을 받는 것 등을 중심으로 운동해왔는데, 이것은 정말 여성을,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와 쟁점〉 참가자 소감

일과 가정,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양성평등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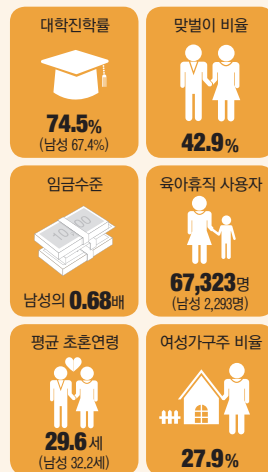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

- 여성인구 2,520만 4천명으로 총 인구의 50.5%를 차지
-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4.5%로 남학생 67.4%보다 높음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 남성에 비해 낮은 취업률
 -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6%로 남성 89.4%보다 24.8% 낮음
-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
 -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8.7% 수준
 - 여성 비정규직 한달 평균 임금은 113만원
 - 이는 2014년 현재 최저임금 1,088,890원과 거의 일치
- 남성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비율
 - 남성 비정규직 37.2%, 여성 비정규직 57.5%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3년('2012년) 기준



결혼 후 맞닥뜨리는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

- 꿈도 못꾸는 육아휴직
 - 전체 사업장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41%에 불과
-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20.1%
 - 결혼(45.9%), 육아(29.2%), 임신과 출산(21.2%) 순으로 '일을' 그만둠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여성노동자 살다!살다!살다!(대여성노동자회)>와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 담다(일다)>를 지원하였습니다.

※ 출처 :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3 국가인권위원회, SBS뉴스 2015. 03. 04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 담다

일다

20대, 아픈 청춘? 무력한 청년이라고?

- <20대 여성, '일'을 논하다> 기록과 발굴
 - 20대 여성 필자 30명 모집
 - 30인의 기록물 30편 발굴
 - 기록물 30편 기사화 및 영문번역을 통한 국내외 소통

• <하늘을 나는 교실> 20대 여성들을 위한 저널리즘 강좌(총 4강)

- 기록을 원하는 20대 여성들을 위한 여성주의 저널리즘 강좌 진행 (총 20명 참여)



20대, 너의 생각이 궁금해!

• 20대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듣다

- 지역, 학력, 일 등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20대 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가치관 전달
 - : 중소기업 파견타이머, 프리랜서, 인디뮤지션, 대기업 3년차, 출판노동자 5년차, 알바노조 대학분회 조합원, 중소기업 사무관리 담당자, 구직 중인 실업자, 사회운동단체 활동가, 공동주거 백수, 핸드메이드 소품가게 사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20대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공유
 - : 총 30편의 기록물 발굴, 30편이 인터넷 신문 '일다' 내 연재, 영문번역 된 20편은 '일다' 영문블로그와 SNS를 통해 연재

• 우리들의 목소리로 소통하다

- '아픈 청춘', '무력한 청년' 등 사회로부터 주어진 20대 여성 담론이 아닌, 당사자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들을 둘러싼 청년여성들의 노동 담론 형성
 - : 사회에 공유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어 있던 20대 여성들의 삶과 고민,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기성세대와 사회에 드러냄
 - : 기록물은 연재된 기사의 댓글, SNS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한편으론 논쟁을 일으킴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30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 담다> 사업을 통해 20대 여성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20대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달 받을 수 있어서 기뻛고, 기록 참여자들에게는 독자들과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위로와 응원을 받아 힘이 되었습니다. 30인의 기록을 통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불안과 싸우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20대 여성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며, 무엇보다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조이어울 '일다' 기획위원 }



여성노동자 살다! 살다! 살다!

대구여성노동자회

일하는 여성, 유쾌한 반란을 꿈꾸다

- <여성노동인권교육> 총 6강 진행
 - 사회구조 알아보기
 -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 여성노동자의 현실 알아보기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만들기
- 여성노동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나와 너의 파트너십을 위한 동행> 진행 (1박2일)
- <여성노동자의 소소한 이야기> 연극 소모임 운영 (16회) 및 연극 공연 개최 (1회)



당당한 여성노동자로 살기 위해!

- 여성노동자 자신감으로 살다
 - <여성노동인권교육> 대구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진행
 - :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노동'이라는 계급성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에게 여성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으로 교육 기획 및 진행
 - : 사업에 대한 만족도 92%, 향후 단계 고정 교육으로 매년 실시 예정
- 여성노동자 맞대며 살다
 - 다양한 여성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도움 받고 도움 주는 자매애 형성 및 자존감 향상
 - : 사업에 대한 만족도 98.6%, 엄마, 아내, 직장인 등 많은 역할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워킹맘들을 위해 파트너십교육 지속 진행 예정
- 여성노동자 즐기며 살다
 - 여성노동자의 소소한 이야기? NO! NO! NO! 여성노동자의 대단한 이야기!
 - : 급식실, 학교 회계직, 보육사, 사무직 등 다양한 경력의 워킹맘들이 모여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 : 보수적 성향이 강한 대구지역 안에서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고충, 돌봄 노동자의 이야기 등을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타인 앞에서 표현하기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343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 담다> 사업을 통해 20대 여성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20대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달 받을 수 있어서 기뻛고, 기록 참여자들에게는 독자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위로와 응원을 받아 힘이 되었습니다.

30인의 기록을 통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불안과 싸우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20대 여성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며, 무엇보다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조이여울 '일다' 기획위원 }

여성폭력, 사라지지 않는 비극

명예살인·할례·조혼... 폭력에 쓰러지는 이슬람 여성들

- 2014년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여성 3명 중 1명 이상(35%)이 육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18세 미만 여성 10명 중 1명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 남편·애인에게 살해되는 한국 여성, 2014년 114명 발생
 -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권 모씨(41)씨와 그의 딸(14)과 모친(68) 등 일가족 3명이 살해됐다. 범인은 권씨와 3년간 교제해 온 김 모씨(34)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권씨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찾아가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김에 권씨를 살해했다."

대학 내 만연한 성희롱, 성폭력! 그 해결책은?

- 대학 교수, 강사 등 권력관계에 기반 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대학 동기, 선배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급증

여성신문

2015년 2월 26일

[단독] 서울 K대 소모임 카톡방서 언어 성폭력 심각... 학교 방관 여학생 사진보며 범죄수준 음담패설 학내 언론 통해 알려졌지만, 학교는 3개월 지나도록 사실 파악도 무해

공 / 감 / 언 / 론 뉴시스
NEWSIS

2015년 3월 14일

대학 교수 연이은 성추행 사건... "학교 벗어나 외부로 드러내야"

여성신문

2015년 2월 26일

국민대 카톡방 성폭력 사건 '일파만파'... "성범죄 수준 언어 폭력"여론 들끓자 학교 측 허겁지겁 대책 내놔 "피해 여학생과 내부 고발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젠더감수성 교육 절실"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경찰과 함께하는 여성폭력 인식개선 교육&캠페인(여성인권상담소 소년의 집)>와 <건강하고 평등한 연애를 위한 "데이트공작소"(한국여성의전화)>를 지원하였습니다.

※ 출처 : 뉴시스 2015. 03. 14, 뉴스한국 2015. 01. 27,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신문 2014.07.30, 여성신문 2014.02.06, 여성신문 2015. 02.12, 여성신문 2015. 02. 16, 연합뉴스 2015. 03. 16, 중앙일보 2015. 03. 08, 헤럴드경제 2014. 07. 05



“경찰과 함께하는 여성폭력 인식개선교육&캠페인”

여성폭력 NO! NO! NO! 함께하는 포돌이, 행복한 여성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 경찰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진행
 - 총 3개 지역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총 6회 진행, 총 399명 참여
 -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여성폭력 바로알기〉 캠페인 진행(1회)



여성폭력, 사적인 일이 아니라 범죄

- 눈 맞추기
 -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도움을 청하는 경찰들에게 여성폭력 및 인권유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2차 피해 예방
 -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NGO단체(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의 역할에 대해서 알림으로서 향후 유기적 연계 시스템 기반 마련
 - : 서울 광진구 광진경찰서 1회 진행, 80명 참여
 - : 서울 광역수사대 성매매전담반 1회 진행, 30명 참여
 - : 서울 서대문경찰서 4회 진행, 289명 참여
- 안아주기
 - 강동구 지역주민들에게 현재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 여성폭력 시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체험부스,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알림
 - : 7월 여성주간을 활용한 캠페인 1회 진행, 강동구 지역주민 400명 참여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104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최일선에서 만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의 고민에 답은 범죄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경찰서 혹은 경찰청에 알아보았으나 특별한 교육이 없었고, 이에 지역 경찰서 경찰들에게 우선으로 교육을 진행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만난 경찰 한 분 한 분에게 ‘소냐의 집’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진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팀장 }



건강하고 평등한 연애를 위한 “데이트공작소”

한국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진짜’ 폭력이 아닐까?

- 〈데이트공작소 공방학교 : 20대를 위한 실용연애특강〉 입문 및 심화 과정 진행 (20회)
- 데이트 폭력 근절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데이트 강의 및 캠페인 〈데이트UP데이트 in 캠퍼스〉 진행 (7회)
- 연애지침서 〈우리, 사랑일까 : 평등한 연애를 위한 멘토링북〉 소책자 1,500부 제작 및 배포
- 데이트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한 〈데이트폭력 집담회 : 학내 성폭력을 말하다〉 개최 (1회)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해!

- 연애, 잘 하고 있는걸까?
 - 데이트 강좌를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데이트 문화’를 성찰
 - : 공방학교 입문과정에 총 15명 참여를 계획하였으나, 총 57명이 수강하여 목표대비 380% 초과 달성, 강좌 만족도 99%
 - : 공방학교 심화과정에 총 6회 진행을 계획하였으나, 총 16회 진행하여 목표대비 267% 초과 달성, 심화과정 참여자들이 〈데이트UP데이트 in 캠퍼스〉 캠페인 기획 및 진행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20대 여성 액티비스트 활동의 장을 마련
 - : 참여자 중 1명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로서 참여함으로써 20대 여성 액티비스트 발굴이라는 목표 달성
- 그대들의 연애전선 이상 없나요? 연애인을 찾아가는 데이트UP데이트!
 - 대학을 중심으로 캠페인과 강좌 진행을 통해 학내 데이트폭력 예방과 근절 및 건강한 데이트 문화 확산
 - : ‘전국공정연애실력고사’, ‘연애지침서’ 등 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여 ‘데이트폭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연애 경험 안에서 성별권력관계와 폭력을 다룸으로써 대중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냄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43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종착지가 아니면 단순 유희 혹은 일탈로 치부되는 ‘연애’라는 이슈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위치와 경험을 사회 구조적인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고 해석해보는 시도는 개인의 문제로 상정하며 그 심각성을 은폐했던 ‘데이트폭력’을 20대가 주도적으로 실천의 영역으로써 주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더불어 여성폭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통념을 넘어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중을 만나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와 인식개선을 도왔다는 점에서 20대가 가진 역량과 운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부장 }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며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평등 문화 지원 이 땅의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여성폭력 예방,
인권증진 사업



사회 전 분야의 여성리더
발굴, 육성 사업



성차별적 관행,
문화 개선 사업 등

여성 NGO와 활동가 역량강화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소셜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활동가
심재충전 지원



여성NGO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여성NGO,
여성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소외계층여성 Empowerment 사업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및
자녀의 의료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안정망
및 사회활동 지원



양육미혼모 및 자녀의
자립과 복지 향상 사업



한부모 여성가장 및
이주여성 취업 창업 지원

돌봄공동체 구축 미래 세대와 함께 대안적 경제·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다문화자녀
멘토링



돌봄노동의
사회화



돌봄커뮤니티의
여성리더십 지원



100인 기부릴레이 100인 기부릴레이는 4월부터 시작하는 30일간의 기부축제입니다.
 Since 2003 누구나 참여하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과의 팀플레이 기부입니다.



친구야. 기부하자!

좋아하는 사람들, 매일 보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세요!

100인 기부릴레이는 안전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달립니다.
 서로 돌보는 따뜻한 사회, 한국여성재단이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폭력예방 및 인권증진
4,450명 지원

자립지원
363명 지원

여성역량강화
229명 지원

2014년 4,687명이 기부해주신
161,500,000으로 13개 여성공익단체를
통해 7,5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성평등문화 확산
2,212명 지원

여성친화 정책
290명 지원

참가신청 전화 02-336-6463 팩스 02-336-6459 이메일 womenfund@hanmail.net

기부방법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하기 | 전화, 이메일 등으로 기부약정서 전달 후원하기

후원계좌 국민 079801-04-001536 농협 1279-01-000251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공익재단입니다.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